

[사회]

수시 1학기 전형 2008학년도 폐지 가능성

광주·전남 지역대학 찬반 '팽팽'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수시1학기 전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인적자원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수시1학기 전형 개선방안을 논의해온 교육혁신위원회가 24일 수시1학기 전형 폐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후 각 대학마다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08년부터 대학 수시1학기 폐지 가능성 = 교육혁신위는 2008학년도부터 대학들이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고 수시2학기에 통합해 모집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권고하도록 했다. 교육혁신위는 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중3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시1학기 모집을 공식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1학기 전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 지역 주요 사립

대학들도 2008학년도부터 수시1학기 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놓고 있어 폐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역 대학 각기 다른 목소리 = 2007년에 모집 정원 5천92명 중 15.8%인 807명을 수시1학기 전형을 통해 뽑는 조선대 관계자는 "수시1학기 전형이 폐지되면 그동안 파행 운영돼 왔던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폐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시1학기 전형을 통해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수능능력이 부족하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집 정원 1천720명 중 14.6%인 251명을 뽑는 동신대도 "전국 모든 대학이 동시에 폐지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

모집 정원 1천490명 중 20%인 298명을 수시1학기 전형으로 뽑는 광주대 관계자는 "수시1학기 전형시기를

▲수시1학기 모집 = 수능시험 없이 고등학교 1, 2학년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식. 담임교사 및 자기추천자 전형, 실업계고교교신자 전형, 농어촌출신자전형 등이 있다.

현행 7월에서 9월로 옮기면 대학의 신입생 선발방식 다양화와 학생들의 대학 및 학과 선택 폭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집 정원 1천950명 중 17.7%인 346명을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선발하는 호남대 관계자는 "수시1학기 전형을 어느 정도 신입생을 확보해야 수시2학기나 정시 전형에서 안정적인 입사관리가 가능하다"며 "수시1학기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천 정화활동 '자연보호중앙회 광주지회' (회장 최경주) 회원 500여명은 24일 오전 광주천 광주교 인근 고수 부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하천 정화활동을 벌였다. /위직량기자 jrvi@kwangju.co.kr

광주 초등학교 예산중 학부모 부담 61%

광주지역 초등학교 전체 예산 중 학부모 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1.3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에 따르면 광주 134개 초등학교 중 홈페이지에 예산을 공개한 97개교를 대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

으로 14.92%, 현장체험학습비 총액은 55억여원으로 6.12%, 우유급식비 총액은 37억여원으로 4.06%를 각각 점했다.

이외 단체활동비 10억여원(1.14%), 졸업앨범비 7억여원(0.8%), 수련활동비 4억여원(0.4%) 등이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①월드컵 응원기 문자동맹 공역 큰박스 그들에게 힘을~!

응원 메시지 '톡톡'튀게 그라운드 밖도 뜨겁다

'너와 나의 챔피언!' '승리하라라~ 한국' '힘~내세요. 대~한민국!'

대학생 신지은(23)씨는 독일 월드컵 응원 메시지 때문에 며칠 내내 고민 중이다.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 악마'에서 월드컵 응원에 쓰일 문구를 공모하고 있기 때문. 자신의 아이디어가 응원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은 하루종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고민은 신씨 뿐만이 아니다.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는 '특이한 응원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독일 월드컵 개막일이 다가오면서 온라인에서의 응원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고 있다. 네티즌들은 톡톡 튀는 응원 메시지를 태극전사들에게 전달하고, 포털사

네티즌들 연일 아이디어 고심 '월드컵 글꼴'도 새롭게 선보여

이트들은 다양한 이벤트로 네티즌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응원도구 제작에 쓰일 '월드컵 글꼴'(사진)도 새롭게 선보였다. 글꼴 전문 서비스 회사 '문자동맹'(www.iamna.com)은 응원용 글꼴을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는 가로 40m·세로 30m 크기의 초대형 응원용 태극기를 제작해 붉은 악마에 전달했다. 네티즌의 응원 댓글 1개가 달릴 때마다 네이버가 10원씩 내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총 60만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다음'(www.daum.net)은 26일 '다음의 날' 행사를 열고 1만5천여 명이 참가하는 응원 꼭짓점 댄스를 통해 최다 인원인 함께 춤을 추는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할 예정이다.

독일월드컵 공식 후원사인 '야후코리아'(http://kr.yahoo.com)는 현지에서 경기를 직접 관람하며 응원하는 네티즌 응원단 '월드컵 페인' 160명을 선발, 오는 28일 응원단 발대식을 갖는다.

이외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은 태극전사 이름으로 3행시를 짓고, 응원 사진을 올리는 'Again 2002 태극전사에게 붉은 함성'을 이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초·중·고교에 우수 농산물 공급 광주시, 20곳에 급식비 첫 지원

광주시내 일선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비가 첫 지원된다.

광주시는 24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돕기 위해 하반기부터 일선 초·중·고에 급식비 3억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학교는 각 구별 초·중·고교 1곳씩과 특수학교 등 모두 20곳으로 급식을 직영하는 학교다. 광주시내 초·중·고교는 모두 270여 곳이

다. 지원 규모는 초등은 2천160만원씩, 중·고교는 1천800만원씩이며 장애아 등 특수학교는 3천600만원씩 의무 지원된다. 시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학생 1인당 200원 꼴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열악한 지방재정 등을 감안,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이불 빨래도 잘 말라요 5월 25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맑은 뒤 오후 늦게부터 흐려지겠다. ◇주간날씨

광주	차차 흐려짐	15~28°C
전남	차차 흐려짐	15~24°C
전북	차차 흐려짐	16~23°C
충청	차차 흐려짐	14~24°C
경상	차차 흐려짐	13~29°C
강원	차차 흐려짐	13~25°C
제주	차차 흐려짐	12~26°C
서울	차차 흐려짐	13~26°C
인천	차차 흐려짐	12~29°C
대전	차차 흐려짐	14~24°C
대구	차차 흐려짐	13~23°C
부산	차차 흐려짐	15~28°C
울산	차차 흐려짐	13~28°C
충청	차차 흐려짐	13~28°C
경상	차차 흐려짐	15~27°C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0:22 썰물 < 05:47
12:29 썰물 < 17:55
여수 밀물 < 07:28 썰물 < 01:21
20:03 썰물 < 13:32

▲해돋이 05:22 ▲해질 19:36 ▲달돋이 03:37 ▲달질 17:3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금)	27(토)	28(일)	29(월)	30(화)	31(수)
날씨						
최저/최고	17/23	16/23	15/25	13/27	13/27	15/24

광주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선운지구 택지개발 '탄력'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던 광주 선운택지지구 개발사업이 광주시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4일 "오는 2008년 12월 까지 관산구 선암·운수·서봉동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 선운택지개발지구 19만1천평에 대한 예정지구 및 개발계획을 변경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계획은 개설된 국도 22호선(여동로) 확장 구간을 지구에서 빼고 당초 토지이용계획에서 호남대 부지로 반영된 곳을 대학부지로 쓰지 않고 공원과 도로 등을 조성하기로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지구 가운데 48.7%는 1만3천평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4천393호)과 단독주택(179호) 등이 들어서는 주택건설용지로, 49.6%는 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로 반영됐다.

이 곳은 1996년 택지지구로 지정고시돼 관산구에서 2004년 말 완료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결국 2004년 6월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변경돼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협의 등을 거쳐 이번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시작으로 토지보상이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환경 등 영향평가 분야 협의와 실시기획 인가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부모 욕한다" 찾김 교사가 교감 폭행

서울 관악경찰은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의 교감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시내 모 고교 교사 이모(여·3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경 학교에서 이모(여·58) 교감의 머리를 집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교감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느냐' 부모 욕을 하기에 찾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학교 운동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됐다. /연합뉴스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제 폼기름 방수제

(주)태양주막개발 TEL:062) 262-8606 262-8458

전립선 J2V

www.j2v.net

www.j2v.net 호남지사 ☎1588-3871

대한민국 선제사망 치료로 생계유지에 힘써줄 수 있는

휴대폰 문자발송 자동프로그램

한 번에 1000개 발송

승리의 자포자기

www.j2v.net

www.j2v.net 호남지사 ☎1588-3871